



박근혜 대통령

# '정국 주도권 잡기' 치열한 살바싸움

### 靑 밀리면 4년 간 끌려다닐수도 "야당대표 파트너는 여당대표" 야당 땀 수차례 영수회담 제의

박근혜 대통령의 5차 회담 제의에 이어 27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선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을 역제안하는 등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놓고 양측간 수차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번 줄다리기에는 이날 초소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민주당 김한길 대표·3일)→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담(새누리당 황우여 대표·5일)→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5자회담(청와대·6일)→박 대통령과 단독회담(김한길 대표·7일) 제의 등 '회담 신경전'에 이은 두 번째다.

〈정치게임으로서 회담=여권과 야당이 회담 방식을 놓고 이처럼 소독없는 광풍계임을 하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현재의 국정원 문제를 박 대통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야 간의 정치적 사안으로 평가하고 여야 간에 해결할 사안을 청와대가 나서서 안 된다 게 공식 입장이다. 즉, 여권은 '야당 대표의

파트너는 여당 대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격(格) 문제를 떠나 박 대통령이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켜 '여의도 정치' 현안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자칫 어설피게 국정원 문제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여권과 야당이 현재처럼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번에 야당에 한 번 밀리면 향후 4년 이상을 계속 끌려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우선 야당 대표가 'N분의 1'인 되는 5차 회담은 밀도가 떨어져 효율이 없고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사실상 국회 원내 협상을 청와대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중재자처럼 가운데 앉아 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단독회담은 과거 여야 관계가 비관 끝에 내뿜릴 때 선택했던 카드로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설령 성사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청와대에 떠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회담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의 기저에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인식이 깔려있다"며 "여권은 박 대통령이 정치현안에 대해 어떤 지지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과거처럼 박 대통령이 여당의 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 野 5차회담 땀 '국정원' 본질 흐려 "훑만 바라보는 輿 협상 무의미" 여당대표 땀 영수회담 반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태의 최종 해결지로 청와대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 따라 달라요=문제는 이 같은 양측의 논리가 한결같지 않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5년 1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당시 노 대통령은 "나는 여당의 영수(領袖)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라며 거부했다.

반대로 김한길 대표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전직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영수회담을 제의하자 "대통령은 당원일 뿐인데 영수회담 제안은 이상한 일이다. 한나라당 대표의 맞상대가 대통령이라면 여당 대표는 누구와 상대하느냐"며 강하게 반대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

## '노숙투쟁' 김한길 先양자·後다자회담 제안

### "차, 출국 전 답변하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민생관련 5차 회담과 관련, 박 대통령과 자신이 양자회담을 먼저 갖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를 논의한 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다자회담에서 민생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한 글을 낭독, 이같이 말하고 내달 4일 박 대통령이 러시아와 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 지도부 다자회담을 갖자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제안"이

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벌어진 국가분란 현정파괴사태는 무조건 민생이라는 미명만으로 덮여질 만큼 결코 작지 않다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도 좋다"면서도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다자 회담에서 민생을 논의한다면 두 회담 모두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잦은 만남은 국민이 바라는 바"라면서 박 대통령과 자신간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수시로 만날 것을 제안한 뒤 "9월 4일 대통령의 출국 이전에 전향적인 답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민생관련 5차회담 제안에 대해 김 대표가 '선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을 역제안함에 따라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 성사 여부를 결정할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게 대화를 제의함과 동시에 이날부터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부터 천막당사에서 숙식을 하는 '노숙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당은 이번 주말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김 대표의 이 같은 행동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대여투쟁에서 술선수법을 통해 소속 의원 및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권에 단독회담 수용과 국정원 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 검찰, 전두환 연희동 집 정원에 압류 딱지

### "이택수씨 명의 차명재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의 연희동 사저 일부에 대해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6일 전씨의 자택 내 정원

에 대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원은 본채와 별채 사이에 있으며 면적 453㎡(약 137평)로 공시지가가 약 9억원대로 전해졌다.

정원의 명목자는 지난 1982년 당시 대학생이던 전씨 장남 재국씨가 매입했다가 1999년 6월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로 바뀌었다. 이씨는 1996년

전씨 비자금에 대한 수사 당시 무기명채권을 현금화하다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이씨를 소환 조사해 전씨의 정원이 이씨 명의로 된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해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채와 별채로 이뤄진 전씨의 사저 중 별채는 셋째 며느리인 이윤혜 씨가 지난 4월 구입한 상태다. 본채는 1969년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매입했으며, 별채는 전씨가 퇴임 직전인 1987년 4월 땅을 매입해 건축했다.

대지 818.9㎡(약 247.7평)에 단층인 본채는 240.84㎡(72.8평)의 규모이다. 지하 공간은 144.9㎡(43.8평)이다. 본채의 공시지가는 30억원대로 알려졌다.

별채는 대지 312.1㎡(약 94.4평)에 지어진 2층 주택이다. 1, 2층은 각각 93.4㎡(28.2평)로 공시지가는 12억원대 안팎으로 전해졌다.

전씨 부부는 본채와 별채를 터서 하나의 집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별채의 경우 1996년 대법원에서 전씨에게 유죄 및 추징금 선고가 확정되면서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별채는 1996년 국가에 가압류됐다가 2003년 4월 강제경매 처분됐다. 당시 본채는 이순자씨 소유여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지지율↑ 노벨상~ 무인거점~

60%

니 맘대로 하시랍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무안출발 ◆ 장가계직항 전세기 ◆ 10월 8일~11월 15일 매주 화, 금출발**

무안/장가계/천문산 4일	신속 959,000~
무안/장가계/천문산 4일	골목 1,059,000~
무안/장가계/천문산 5일	신속 1,019,000~
무안/장가계/천문산 5일	골목 1,109,000~

불포항사항: 유류할증료(96,000), 기사/가이드(408비지비)23,000원  
특전: 전일정식(시업)그레이트, 전산사시지, 황룡동굴, 천문산+귀곡전도, 준독립이성호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별장으로 GO, GO!!

**일본 규슈 온천 여행**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전통료칸 아미야케 온천즐거기 4일	출발일 9/2,4,11,14,24,29	499,000
규슈, 유후인, 벳부, 히타, 아소+전통료칸 아미야케 온천즐거기 3일		599,000
추석연휴 9/18~21일	히타고급 별장으로 떠나는 규슈 3박 4일	신착순 9좌석 ALL포함 450,000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제일의 상업도시 오사카&아름다운 태평양과 환상적인 온천이 어울어진 와카야마!!

**오사카&와카야마** ALL포함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동굴온천 4일 999,000~

**무안공항전세기 베트남, 캄보디아**  
출발일 매주금요일출발 (12/27~1/21)

**겨울방학 최고의 인기 지역 베트남, 캄보디아!! 무안 전세기**

베트남, 캄보디아 4박 6일 1,299,000~  
불포항: 개인경비, 가이드및기사팀, 유류할증료

**무안공항 8월20일~10월 기획 특가!!(매주금요일)**

무안-북경/만리장성 4일	399,000~
무안-북경/만리장성 5일	469,000~
무안-북경/태항산 4일	799,000~
북경 / 태항산 5일	849,000~

불포항사항: 유류세(W90,000/인), 비자피(W23,000/인), 기사/가이드 팀(\$50/인)

출발일 10/11, 10/25, 11/01, 11/15 (금요일출발)  
광주출도착 all포함 1인당 2,590,000원  
\*특: 전: 광주-인천수송, 미포ESTA VISA 포함, LA김비특시회, 샌프란시스코 베이브루즈 유류선포함, 아이맥스관광포함,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 여행자보험 2억원포함

광주MBC문화탐방 글로벌투어 **아시아나항공**  
도시의 낭만과 자연의 웅장함이 공존하는 **미서부 3대개년6박 인천-샌프란-LA-인천**

**국내여행/섬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269,000~	불포항 기사/가이드팀(W10,000), 식식, 유류할증료(W22,000)
선박 목포-제주도 2박3일 159,000~	불포항 기사/가이드팀(W10,000), 현지직원관광, 자유식식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48,000~

포항사항: ALL포함, 잠금(합숙기준)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행정안전부의 중요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종다 2003-1호**  
\* 공동주관: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예외사항: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기금(공, 공항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 가입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